

## 天命圖說後叙\*

滉은 처음 벼슬한 뒤로부터 한양의 서쪽 성문 안에 寓居한 지가 전후에 걸쳐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웃에 사는 鄭靜而<sup>1)</sup>와 서로 알고 왕래하지 못하였다. 하루는 조카인 교가 어디에서인지 이른바 天命圖라는 것을 얻어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 도식과 해설은 잘못된 부분이 꽤 있었다. 나는 교에게 누가 만든 것이냐고 물었으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 뒤에 차츰 수소문하고서야 비로소 靜而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이에 나는 사람을 통하여 정이에게 本圖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정이를 직접 만나볼 것을 요구하였는데, 모두 편지를 두 서너 차례 왕복한 뒤에야 허락받았으니, 내가 지난 날에 窮僻하고, 누추하여 남과 교제가 적었음이 부끄러울만 하였다.

황은 직접 만남 기회에 정이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 도식이 교가 전해준 것과 다른 것은 어째서인가?” 하고 묻자, 정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제가 지난번 慕齋·思齋<sup>2)</sup> 두 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할 적에 그 훌륭한 이론을 듣고는 물러나와 사재인 아무[某]와 함께 뜻의 歸趨를 강구 하였습니다. 다만 性理說이 너무 미묘하여 기준을 삼아 밝힐 수가 없음을 염려한 나머지 시험삼아 주자의 말씀을 취하고 여러 학설을 참고하

\* 퇴계학연구원, 『退溪學 譯註叢書』 제10권(1996)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 1) 鄭靜而 : 정이는 鄭之雲(1509~1561)의 字이다. 호는 秋巒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 2) 慕齋·思齋 : 모재는 金安國(1478~1543)의 호이며, 사재는 金正國(1485~1541)의 호이다. 김안국은 자가 國卿이고 본관이 의성이며, 김정국은 김안국의 아우로 자가 國弼이다. 이들은 寒暄堂 김굉필을 師事하고 靜菴 조광조와 친교가 두터워 己卯名賢으로 유명하다.

여 한 도식을 만든 다음, 이것을 모재선생에게 올려 의심나는 곳을 質正하였습니다. 선생은 잘못되고 망령되다고 배척하지 않으시면서 이것을 책상 위에 두시고 여러 날 동안 정신을 쏟아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실 것을 청하자 선생은 ‘공부를 많이 쌓지 않으면 가벼이 말할 수 없다.’하였으며, 혹은 배우는 자로서 문하에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이것을 꺼내어 보여주고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 또다시 이것을 사재선생에게 질정하였는데, 사재선생 또한 꾸짖어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선생께서 狂簡한 자를 달래어 나아가게 하려는 뜻에서요, 이 도식이 후세에 전할 만하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그 당시 동문의 여러 생도들이 이것을 謄寫해서 士友間에 전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고친 부분도 또한 많으니, 이 때문에 앞뒤의 도식에 차이가 있어 아직도 정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적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니, 이것을 정정하여 가르쳐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두 선생께서 이의 옳고 그름의 가벼이 논하지 않은 까닭은 진실로 반드시 깊은 뜻이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講學함에 있어 만일 온당치 못한 곳이 있음을 발견하면, 또 어찌 附和雷同하고 굽게 비호하여 끝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士友들이 전하기를 ‘모두 일찍이 모재·사재 두 선생의 是正을 거쳤다.’하는데, 아직도 오류가 있음을 면치 못한다면 師門에는 누가 됴이 또한 크지 않겠습니까?”

정이는 이르기를, “이는 진실로 제가 평소에 걱정한 바입니다. 감히 허심탄회하여 가르쳐 주는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황은 마침내 太極圖와 그 해설을 引證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아무 곳의 오류는 고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무곳의 쓸데없는 말은 제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무 곳의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합니까?”

이에 정이는 황이 말하는 즉시 기꺼이 수긍하고 어기거나 인색해 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다만 황의 말에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극구 논란하고 힐란하여 지극히 마땅한 데로 돌아간 뒤에야 그만두려고 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湖南의 선비인 李恒이 논한 바 ‘情은 氣圈의 가운데에 둘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 여러 장점을 모으는 자료로 삼았다.

그 후, 수개월 만에 정이는 다시 고쳐 만든 도식과 뒤에 붙인 말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다시 거로 참고하고 교정하여 완전하게 만들었으니, 비록 과연 오류가 없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들의 소견에서 본다면 거의 미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여겨진다. 이에 이것을 자리의 오른쪽에 걸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붙여 구경하고 演繹하니, 거의 이 도식을 인하여 스스로 깨우쳐서 心中을 啓發하여 다소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였다.

하루는 문을 두드리고 방문한 客이 있어 이것을 보고 황에게 말하였다.

“내 들으니, 鄭生이 천명도를 지은 것이 있는 바, 그대가 이것을 考訂했다 하는데,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황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꾸짖어 말하였다.

“심하다! 정생의 참람하고 주제넘음과 그대의 어리석고 망령됨이여!”

이에 황이 깜짝 놀라며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그 客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黃河의 落水에서 상서로운 것이 나오자, 복희씨와 禹王이 이것을 인하여 주역의 팔괘와 書經의 洪範을 지었으며, 五星이 奎星에 모이자, 周子가 이에 응하여 태극도설을 만들었다.<sup>3)</sup>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圖

3) 五星이……만들었다. : 오성은 금성·목성·수성·화성·토성을 가리키며, 奎星은 28宿의 하나인데 文運을 주관한다. 周子는 濂溪 周敦頤의 존칭이다. 옛

책을 짓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에서 나온 것이며, 반드시 聖賢이 있는 뒤에야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 정생은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러한 도식을 만들며, 그대는 또한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그의 잘못을 본받는단 말인가?”

황은 일어나 절하고 사과하였다.

“書生이 옛것을 믿고는 마음대로 저촉하고 무릅써 참람함이 이에 이르렀는데, 그대의 심한 꾸짖음과 타이름을 입어서 거의 罪過를 면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다행이 없다. 그러나 가령 이 도식이 經傳의 뜻에 위배되고, 私見을 내어 별다른 뜻을 새로 창출해 냈다면, 단지 그대가 비난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공격할 것이요, 단지 先正에게 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하늘에게도 죄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식은 朱子의 말씀을 따라 태극의 本圖에 의거하고 中庸의 大旨를 기술하여, 드러남을 인하여 은미한 이치를 알아서 서로 발명하여 쉽게 깨닫고자 함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을 따름이니, 어찌 깊이 나무랄 것이 있겠는가.”

객은 勃然變色하고 말하였다.

“그대가 나를 속이는구나. 周子의 태극도는 태극으로부터 五行까지 세 개의 층을 만들었고, 氣化와 形化<sup>4)</sup>를 또 두 개의 층으로 만들었는데, 이 도식은 다만 덩그런 한 圈子<sup>5)</sup>일 뿐이니, 어찌 그와 같은 말인가?”

황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객은 진실로 태극과 二氣·五行이 세 층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기화와 형화가 세 가지의 밖에서 나와 별도로 두 층이 있다고 여기는

---

날 천문학에 오성이 규성에 모이면 세상이 문명할 조짐이라 하는데, 宋太祖 乾德 5년(967)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바, 그후 주돈이 등 여러 유학자가 배출되었다 한다.

4) 氣化와 形化 : 기화는 사람이나 동식물이 처음에 천지의 기운에 의하여 저절로 태어나는 것을 이르며, 형화는 수컷과 암컷이 서로 교접함으로써 태어나는 것을 이른다.

5) 圈子 : 동그라미를 가리킨다.

가?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요,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 하였으니, 음·양 두 기운의 조화는 바로 태극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渾淪하여 말하면 단지 하나일 뿐인 것이다. 다만 周子는 태극도를 만들어 사람에게 보일 적에 다섯으로 나누어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뿐이었다.”

객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또한 도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 줌에 있어, 어찌하여 周子처럼 하나를 나누어 다섯으로 만들지 않고, 도리어 다섯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던 말인가? 이것이 그 異見을 주장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각기 주장할 바가 있기 때문이다. 濂溪는 理·氣의 本原을 천명하고 조화의 기묘를 발명하였으니, 이것을 나누어 다섯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제대로 깨우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천명도는 사람과 사물의 稟賦를 인하고 이·기의 化生을 근원하였으니, 합하여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위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부득이해서 만든 것이다. 더구나 사람의 위치에서 본다면 이른바 ‘하나가 나뉘어 다섯이 되었다’는 것이 완전히 모두 구비되어 있는바, 그 뜻이 堦계의 태극도설에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은 태극도설을 가지고 그려냄에 불과할 뿐이요, 이견을 내세운 것이 아니다.

객이 말하였다.

“태극도에는 陰 가운데 陽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는데 이 도식에는 없으며, 태극도에는 元·亨·利·貞이 없는데 이 도식에는 있으며, 태극도에는 地와 人物의 형체가 없는데 이 도식에는 있으니, 이는 어째서인가?”

황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음 중에 子에서 午까지는 양 가운데의 음이 되고, 양 중에 午에서 子까지는 음 가운데의 양이 되니, 이는 河圖와 堦계의 태극도가 모두 그러하다. 다만 하도와 태극도는 對待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객이 주

인의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이 천명도는 運行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제 철을 당한 것이 속에 있고 성공한 것이 밖에 있을 뿐이니, 그 실체는 똑같다. 염계의 태극도설에 이르기를 ‘오행이 생길 때에 각기 그 性을 하나씩 간직한다.’ 하였으니, 性은 바로 理이다. 그렇다면 태극도에 이른바 ‘오행의 性’이란 바로 여기의 원·형·이·정을 말한 것이니, 어찌 저기에 없는데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地와 人物의 형체로 말하면, 이 또한 태극도설에서 취한 것이다. 태극도설에 ‘태극의 眞과 二五의 精氣가 묘하게 합해서 남자를 이루고 여자를 이루어 만물을 화생한다. 그리하여 만물이 생기고 생겨서 변화가 무궁하다.’ 하였는데, 이것이 인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진실로 이 천명도는 ‘인물의 품부함을 인하고, 이·기의 화생함을 근원하여 지었다.’고 하였으니, 地 또한 한 물체이다. 그렇다면 인물을 나타내면서 함께 地 또한 한 물체이다. 그렇다면 인물을 나타내면서 함께 地를 나타냄은 모두 멀리 先賢의 것을 본받은 것이다. 그대가 어찌 그 사이에 있다 없다 하고, 같다 다르다 하여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객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이 천명도가 태극도에서 본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대의 말은 그럴 듯하다. 그러나 태극도에는 左가 陽이 되고 右가 陰이 되었는데 이는 하도·낙서의 앞에는 午가 있고 뒤에는 子가 있으며 左에는 卯가 있고 右에는 酉가 있는 방위에 근본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만세에 변할 수 없는 정해진 分數이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황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방위를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요, 다만 보는 자가 도식에 대하여 賓·主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하도·낙서 이하 모든 圖書의 위치는 모두 북쪽을 위주로 하였고, 보는 자 또한 북쪽을 주장하여 보고 있으니, 이는 도식과 사람이 賓·主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先後·좌우와 동서·남북이 모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천명도는 도식이 위주가 모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천명도는 도식이 위주가 되어 북쪽에 있고, 보는 자가賓이 되어 남쪽에 있으니, 빈의 입장에서 주인을 향하여 남쪽으로부터 북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후·좌우가 보는 자의 向背에 따라 서로 바뀌었을 뿐이요, 천지의 동·서·남·북의 본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그 曲折이 서로 다른 듯하나 뜻에는 다름이 없는 것이다.

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도·낙서와 先天·後天등은 모두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천명도는 위에서부터 시작됨은 어째서인가?”

황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또한 태극도에 의거하여 그러한 것이다. 태극도가 반드시 위로 부터 시작된 까닭을 나는 그 이유를 말하겠다.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전후·좌우를 나누고, 인하여 뒤에 있는 子를 아래로 삼고, 앞에 있는 午를 위로 삼은 것은 하도·낙서 이하 모든 도서가 다 그러하다. 그런데 그렇게 된 까닭은 陽氣가 처음 아래에서 생겨나 점점 자라서 위로 지극해지니, 북방은 양기가 처음 생겨나는 곳이다. 저 하도·낙서는 모두 음·양이 사라지고 사라나는 것을 위주로 하였는데, 양을 중요시하였으니, 북쪽으로부터 아래에서 시작됨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태극도에 있어서는 이와 다르다. 理·氣를 근원해서 조화의 기틀을 발명하여 上天이 생물에게 理를 命해 주는 도리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된 까닭은 하늘의 위치가 진실로 위에 있으며, 본성을 내려 주는 天命을 아래로부터 올라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천명도는 한결같이 絜계의 옛것을 의거하였으니, 어찌 이에 대해서 홀로 그 뜻을 어길 수 있겠는가? 당초에 靜而는 하도·낙서의 예에 따라 아래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고쳐 絜계의 예를 따르게 한 것은 황의 책임이다.”

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극도가 위로부터 시작된 것은 火가 왕성한 午方의 位次에 해당하고, 이 도식이 위로부터 시작한 것은 水가 왕성한 子方의 位차에 해당

하니, 이것도 같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태극도는 이미 하늘이 생물에게 理를 명해 줌을 위주하였으니, 도식의 上面은 바로 上帝가 性을 내려 주는 최초의 源頭로서 만물의 根柢의 極致가 된다. 하도·낙서 등의 도식에 음·양의 消長을 위주로 한 것과는 자연히 다르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그 도식의 體를 다만 한복판에다 세워서 <그 내려오는 이치를> 바로보도록 했을 뿐이요, 편벽되어 남쪽만을 가지고 위로 만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지금 이 도식을 만들면서 인물이 품부하여 생겨난 뒤로부터 천지의 運化의 근원을 미루어 나간다면, 도식의 상면은 진실로 태극도의 상면인 셈이지만 상면이 되는 所以의 위치와 등급은 똑같지 않다. 태극도는 태극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음양과 오행이 있는 뒤에 無極의 眞과 二五의 精氣가 묘하게 凝結하는 圈子자 있으니, 묘하게 응결하는 권자는 바로 이 도식에 揭示한 천명의 권자인 것이다.

朱子는 말씀하기를 ‘태극에 動·靜이 있음은 이것은 천명이 流行하는 것이다.’하였으니, 진실로 이 말씀대로라면 천명도를 만들 때에 마땅히 태극에서 시작을 하여야 할 터인데, 지금 이 도식은 마침내 묘하게 합하여 응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함은 어째서인가? 인물이 이미 태어난 뒤를 따라 미루어 올라가서 묘하게 합하여 응결하는 부분에 이르면, 이미 극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도식의 상면에 해당시켜 천명이 내리는 즈음을 삼은 것이다. 오행과 음양 이상은 진실로 天圓의 한 도식에 갖추어져 있으며,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태극은 또 굳이 묘사할 필요가 없이, 심원하여 그치지 않음이 그 가운데 뻗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식의 상면 또한 어찌 편벽되어 水가 왕성한 위치에만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객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렇다면 태극도처럼 북쪽을 말미암아 남쪽을 향해서 인물을 그 사이에 놓을 수가 없단 말인가? 또 북쪽을 위로 삼고 남쪽을 아래로 삼은



것도 또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가?”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천지의 性에는 인간이 가장 귀중하다.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의 도를 세움은 음과 양이요, 땅의 도를 세움은 柔와 剛이요, 사람의 도를 세움은 仁과 義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인간이 人極<sup>6)</sup>을 세우면 천지와 더불어 참여됨을 말한 것이다. 천지의 도는 북쪽을 위주로 하고 남쪽을 향하였으며, 사람은 그 사이에 태어나 음을 등지고 양을 안고 있어서, 또한 북쪽을 위주로 하고 남쪽을 향해 서 있으니, 이것이 올바른 위치이다. 여기에서 천지와 더불어 참여하여 三才가 되는 귀중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천지는 북쪽을 위주로 하고 남쪽을 향해 있는데, 사람은 남쪽으로부터 북쪽을 향하여 양을 등지고 음을 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천지가 主가 되고 사람이 賓이 된다면, 名과 實, 向과 背, 輕과 重, 貴와 賤이 모두 그 마땅함을 잃게 될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또 종래의 圖書들이 북쪽을 아래로 삼은 것은 북쪽이 아래란 뜻이 아니요, 기운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감을 근거하여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천명도는 천지가 형체를 정해 가지고 있음을 근거하여 말했으니, 진실로 북극은 높고 남극은 낮으며, 서북은 높고 동남은 낮음을 또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객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사람과 禽獸와 草木의 형체를 方·圓과 橫·逆의 類로 나눈 것은 무엇을 근거한 것인가?”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는 先儒의 말씀에 근본한 것으로서 靜而의 변론에 또한 자세히 말하였으니, 내 더 이상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겠다.”

객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렇다면 천명도로부터 이하의 心·性·情·意에 대한 善·惡의 분별과 四端·七情의 발함에 있어 子思와 周子에 부합하는 내용을 그 대

---

6) 人極 : 인간의 도리를 다하여 사람의 표준이 됨을 이른다.

락을 말해 줄 수 있겠는가?”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천명의 圈子는 바로 周子の 이른바 ‘無極의 眞과 二五의 정기가 묘하게 합하여 응결한다.’는 것인데, 자사는 理·氣가 묘합하는 가운데서 홀로 무극의 理만을 가리켜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곧바로 性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人과 物을 나누고 물건마다 각기 한 태극을 간직하고 있다.’ 한 것은 주자의 태극도설에 뜻을 근본한 것이니, 자사의 이른바 性이라는 것이다. 心·性의 권자는 周子の 이른바 ‘오직 인간만이 그 빼어남을 얻어 가장 영특하다.’는 것은 마음이며, 성은 그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仁·義·禮·智·信 다섯 가지가 이것이요, 빼어나다는 것은 氣와 質이다. 오른쪽의 質은 陰이 하는 것이니, 바로 이른바 ‘형체가 이미 생겨났다.’는 것이요, 왼쪽의 氣는 陽이 하는 것이니, 바로 이른바 ‘神이 지혜를 발한다.’는 것이다. 性이 발하여 情이 되고, 心이 발하여 意가 됨은, 바로 五性이 감동함을 이르는 것이요, 善幾와 惡幾는 ‘선·악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요, 사단과 칠정은 ‘萬事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천명도의 구구절절은 모두 주자의 태극도설에 근본한 것이며, 性·情의 未發·已發은 또 어찌 자사의 뜻에서 벗어난다 하겠는가. 더구나 敬으로써 靜할 때에 存養하는 것은 주자의 ‘靜을 주장하여 極을 세운다.’는 것으로서 자사의 ‘戒懼로 말미암아 中을 지극히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요, 動할 때에는 敬으로써 省察한다는 것은 周子の ‘中·正·仁·義로써 定하여 닦는다.’는 일로서, 자사의 ‘謹獨으로 말미암아 和를 지극히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惡幾가 옆으로 나온 것은 바로 ‘소인들이 도리를 어그러뜨려 흉하다.’는 것이니, 나는 이 도식은 사사로운 생각으로 창출해 낸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어찌 지나치게 誣陷하는 말을 빌릴 것이 있겠는가? 배우는 자가 이에서 천명이 자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진실로 알아 덕성을 높여 지극히 信順하게 한다면 良貴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요, 사람의 極이 여기에 있어, 천지에 참여하고 化育을 돕는 功效가 모두 이르게 될

것이다. 위대하지 않은가.”

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이 도식이 자사와 周子의 도에 부합한다고 말하니, 이는 鄭生과 그대가 과연 자사와 주자의 도에 터득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 들으니, ‘도가 있는 자는 흉중에 쌓여 밖으로 나타나서 덕스러운 모양이 얼굴에 나타나고 등에 가득하다. 그리하여 집안에 있어도 반드시 뜻대로 되며, 나라에 있어도 반드시 뜻대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정쟁은 곤궁하고 불우하여 사람들이 모두 저버리고 있으며, 그대는 용여하고 옹졸하면서 욕되게 祿만 먹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며 버리고 있다. 사람은 비록 자신을 알기가 어렵다고 하나 어찌 조금이라도 스스로 돌이켜 자기 몸을 헤아려 보지 않고, 마침내 서로 더불어 참람하고 망령된 짓을 한단 말인가?”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나는 처음에 객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대의 물음에 따라 무릎 꿇고 나의 어리석은 소견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나로 하여금 크게 실망하게 만든다. 만일 그대의 말과 같다면, 이것은 孔子가 있는 뒤에야 周公의 도를 논할 수 있고, 자사와 맹자가 있는 뒤에야 顏子·曾子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聖人是 하늘을 바라고 賢人是 성인을 바라고 선비는 현인을 바란다.’는 말을 모두 버려야 하겠는가? 漢나라 이후부터 易學을 논한 자가 많은데, 그러면 이들은 모두 伏羲·文王·周公·孔子와 같은 성인이란 말인가? 宋代로부터 唐代에 이르기까지 모두 周子·邵子·程子·朱子와 같은 현인이란 말인가? 선비가 義理를 논함은 농부가 누에치고 삼을 가꾸는 것을 말하며, 목수가 먹줄로 먹통을 논하는 것과 같으니, 또한 각기 떳떳한 일이다. 그런데 그대가 농부를 나무라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 제님께 神農氏가 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匠石을 나무라기를 ‘이것은 망령되어 公輸子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신농씨와 공수자는 진실로 쉽게 미칠 수가 없다. 그러나 농부와 목수가 이들을

버린다면, 또 어떻게 농부와 목수가 되는 것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대의 말이 행해진다면 나는 먹줄과 먹통이 폐기되고, 누에치며 삼을 가꾸는 것이 황폐해질까 염려된다. 옛날 蜀 땅에 箒을 메는 자가 주역의 한 句를 말하였는데, 그의 말이 이치에 맞자, 君子는 이것을 취하여 후세에 전했다. 이 어찌 반드시 통을 메는 자를 복희씨와 문왕이라고 여긴 것이겠는가. 말이 취할 만하면 취하는 것이니, 군자가 사람을 취함은 이와 같은 것이다. 군자가 남에게 責하기를 후하게 하지 않고, 그 좋은 뜻을 용납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 그대의 말은 우리들이 이것을 얻어듣고서 스스로 참고하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매우 고마운 가르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책하는 그대의 도리에 있어서는 너무 험악하고, 편협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대는 어찌 차마 함부로 이런 것을 한단 말인가.”

객은 이에 茫然自失하고 釋然히 깨달음이 있어 머뭇거리다가 떠나갔다. 나는 마침내 문을 닫고 그와 문답한 말을 기록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또 이것을 정이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嘉靖 癸丑年(1533) 臘平에 淸涼山人은 삼가 쓴다.